임실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첫 입국

11명 토마토·딸기 하우스 농가 배치 5~8개월간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난 해소 기대

임실군에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함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라오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11명이 입국해 본격적인 농촌 일손 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첫 입국 한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2월 임실군과 라오스 정부 간의 계절근로자 도입 양해각서(MOU)에 따라 선발됐으며, 이날 열린 환영식에서 고용주와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마약 검사 및 사전교육을 이수한 뒤 관내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배치되어 5개월에서 8개월간 파종·수확 등 본격적으로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에서는 금융교육과 계좌 개설을 도와 근로자들이 직접 임금을 수령·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실군에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함에 따라 농촌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의 첫 라오스 입국 계절근로자들은 단순한 노동력 확보를 넘어 라오스와의 국제 협력 확대와 기존의 베트남,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로 국한되어 해당 국적 근로자 입국 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 수요 증가를 대비해 5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고용 희망 농가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고용 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의 계절근로자 인력 도입에 대한 이해도 증대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오는 9일과 12일 오수면사무소,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심 민 군수는 "라오스 근로자 여러분들의 첫 입국을 환영하고, 우리 지역 농가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근로자 여러분이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 환영식을 개최했다.

순창군, 국제 전지훈련 메카 도약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 7번째 방문

순창군은 지난 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이하 필리핀 팀)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마이클 엔리케즈 감독을 비롯해 필리핀 팀 선수단 19명 전원과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 박경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영일 군수는 환영 인사와 함께 훈련용품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선수단을 격려했다.

필리핀 팀은 8월 24일 순창군에 도착해 9월 12일까지 19일간 전지훈련을 진행한 뒤, 문경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 소프트테니스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필리핀 팀은 2018년 첫 방문 이후 올해로 일곱 번째 순창군을 찾았다.

2022년 순창군과 필리핀 소프트테니스연맹 간 스포츠 교류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전북소프트테니스협회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순창군의 훈련 전담 인력 배치, 스포츠 연계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가 방문 지속의 배경이 됐다.

특히, 필리핀 팀은 2023년 두 차례 전지훈련 후 동남아시안게임에서 소프트테니스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순창 전지훈련의 성과를 입증했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글로벌 전지훈련팀 유치에 힘써, 지난해 외교부 공모 '공공외교 우수사례'에서 외교부장관상, 시도지사협의회 공모 '지방외교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국제 교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영일 군수는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팀이 순창을 전지훈련지로 꾸준히 선택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순창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국악대제향 열린다

남원시, 11일 운봉 악성사서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운봉읍에 위치한 국악의성지(악성사)에서 제19회 대한민국 국악대제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뿌리를 기리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것이며, 남원은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이자 춘향가와 흥보가의 주요 무대로, 가왕 송흥록 선생, 국창 박초월 선생과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꾼 안숙선 명창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다.

특히 대제가 열리는 운봉 지역은 옥보고 선생이 50여 년간 거문고를 연구하며 국악의 기반을 다진 역사적 장소로, 남원이 명실상부 국악의 성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번 국악대제향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의 정화무를 시작으로 각 제관의 헌례, 명창·명인의 헌가·헌무 및 국악인 묘역참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악대제향을 통해 "전통소리의 뿌리이자 국악문화가 살아 숨 쉬는 국악의 성지로써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족음악의 전통과 국악인의 혼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면접 수당 지급 사업' 하반기에도 추진

남원시는 작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면접 수당 지급 사업'이 구직자들의 높은 참여로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의 하나로, 구직자가 면접 과정에서 부담하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것이 면접 기회 확대와 취업 성과로 이어지면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총 162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3건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40%가 넘는 65명이 취업에 성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남원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도 '면접 수당 지급 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구직자들의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면접 수당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남원 퀵스타트사업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전화(063-625-0882)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 개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이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공무원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특별한 임용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2025년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8급 및 9급 공채 시험 최종 합격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정직 10명, 간호직 6명, 농업직 2명 등 9개 직렬의 유능한 인재들이 실무수습 신분으로 공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임용식은 신규 공무원과 가족 50여 명을 초청하여 공직에 입문하는 아들, 딸의 자랑스러운 공직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심 민 군수는 일일이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장과 공무원 실무수습증, 꽃다발을 건네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심 민 군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젊은 패기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사업회, 정기 이사회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한경희)가 지난 4일 청웅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20여 명은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준승 선생 기념사업회는 일제 강점기 시대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인 독립운동가 박준승 선생의 나라 사랑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2013년도에 창립된 법인으로 매년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3·15 만세운동 재현행사, 3·1독립만세운동 문화 행사 및 특별강연회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역사 유적지를 견학하고 11월에는 청웅면 옥석리 주치마을에 있는 박준승 선생 생가에서 추모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념사업회는 이 외에도 호국정신의 뜻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관공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당부

순창군은 최근 관내에서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확인된 사례에 따르면, 사칭범들은 공무원 명의와 공무원증을 위조해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뒤, 물품 구매 계약 체결이나 선금 요구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고액의 물품 납품이나 금융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문자나 전화에서 기관명이나 공무원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명함이나 공무원증 사진만으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유선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은 어떠한 계약에서도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량 물품 구매 요구, 업체 알선, 선금 요구 등은 사칭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